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 구 분  | 내 용  |
|------|--|
| 제목   | 무심천 무심이  |
| 수상내역 | 우수상(재단이사장상)  |
| 작가   | 고갑천  |
| 공모분야 | 트리트먼트  |
| 장르   | 애니메이션, 만화  |
| 소재   | 무심천 유래설화   |
| 시놉시스 | <p>무심천에는 꼬마정령 무심이가 산다.</p> <p>지금으로부터 오년 전 무심천가의 남석교 아래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무심이!</p> <p>무심천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은 어린영혼을 가없이 여겨 강을 지키는 수호정령으로 거뒀다가 된다.</p> <p>무심이에게는 마음이 아리는 슬픔이 있는데.</p> <p>그것은 바로 자신의 단 하나뿐인 혈육! 엄마다.</p> <p>자신을 잃은 죄책감과 충격에 미쳐서 아직도 무심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민선. 그녀는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며 상한 고기를 긁어모으는데 그것은 아들에게 해주기로 약속했던 고기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다.</p> |



:: 우수상 ::

재단이사장상

# 무심천 무심이



고 갑 천

## 기획의도

소비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는 잊혀 지기 마련이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우리의 구수한 입담이 갖든 구비전승문학들이 현대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더 이상 아이들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구전문학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해외의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스토리에 빠져 우리의 이야기를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대통령이라는 ‘뽀로로’가 국산만화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뽀로로’가 우리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듯 하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이 수용하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그 대가 끊길 위기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구비문학들을 변용시켜 다음 세대에 까지 소중한 유산으로 전하고픈 욕심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구비문학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설화와 전설이 현대의 동화적 판타지와 조우했을 때 우리의 구비문학은 아이들에게 소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공모전’에 도전한다. 우리 고유의 문화원형 소재를 현대적 콘텐츠에 적용하여 변형시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이야기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줄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더하는 글

한 가지 충심으로 주최 측에 건의하자면,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공모전 치고는 소재의 제한이 있다는데 아쉬움을 느낀다.. 청주와 청원지역의 문화원형만을 소재로 쓰여진 작품만을 공모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차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수상작들을 살펴보다라도 ‘직지’를 소재로 유출과 반환의 과정을 작품화 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는 소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내가 소재로 차용한 무심천비에 적힌 유례설화 역시 이미 6회 숲의 메모리에서 차용된 소재이다. 결국 같은 소재로 다른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이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대부분 같은 소재, 다른 이야기다. 작년의 심사평을 보아도 소재의 중복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공모전의 특성상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 부디 우리의 문화원형의 현대적 수용과 공모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재의 폭을 ‘전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넓혀줄 것을 건의 해본다.

## 무심천 무심이

### <줄거리>

무심천에는 꼬마정령 무심이가 산다.

지금으로부터 오년 전 무심천가의 남석교 아래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무심이! 무심천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은 어린영혼을 가없이 여겨 강을 지키는 수호정령으로 거둬들이게 된다. 무심이에게는 마음이 아리는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단 하나뿐인 혈육! 엄마다. 자신을 잃은 죄책감과 충격에 미쳐서 아직도 무심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민선. 그녀는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며 상한 고기를 긁어모으는데 그것은 아들에게 해주기로 약속했던 고기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다. 무심이 죽던 날 일을 나가야 했던 민선은 자신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집에 올 때 고기를 사오겠노라 약속했었고 그것이 마음의 깊은 한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엄마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꼬마정령 무심이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거대 기업 ‘마천루’의 공장에서 오폐수를 무심천으로 그대로 방류해 강이 오염될 위기에 처하자 수신이 무심이를 인간세계로 내보내 이 사실을 알리게 하는 메신저의 임무를 맡긴 것이다. 맡은 임무를 완수하면 수신이 약속한 500년전 명암약수를 받아 엄마의 병을 치료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엄마의 곁에 예전의 모습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심이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습을 들어낼 수는 없다. 오직 정의롭고 맑은 영혼의 아이들을 택해 그들 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비가 내리는 어스름한 여름 저녁 남석교 아래서 강아지의 모습으로 인간세계에 발을 들여 놓는 무심!

무심어린이원정대는 정의를 구현한다!

달잠, 백운, 석찬은 올해 초등학교3학년의 같은 학급 친구들이다.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 믿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소년 달잠은 죽이 척척 맞는 백운, 석찬과 함께 자신들이 영웅처럼 떠받드는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와 ‘반지원정대’를 카피해 ‘무심어린이원정대’를 결성한다. 정의를 위해서라며 동네 구석구석 다니며 사고 만치는 장난꾸러기들. 오늘도 세상의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아침 댓바람 등골길부터 정신나간 거지 아줌마를 도와주는데. 영 맘먹은 것처럼 되질 않는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어디서 나타나신 강아지님이 달잠 일행을 도와주고! 덕분에 아주 쉽게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신 원정대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할 강아지님이 무심을 계속 쫓아 다닌다! 결국 자신의 집에 강아지님을 데리고 가는 달잠!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나를 도와줘!! 부탁이야!!

평범한 강아지님이라 생각했었는데! 무심천의 정령이라고?? 달잠의 집에서 ‘반지의 제왕’ DVD를 닳도록 돌려 보고 고단한 잠에 빠진 아이들! 그런데 이 야심한 밤에 누가 방의 창문을 두드린다! 창 밖에는 꼬리를 흔들고 계신 강아지님밖에 없는데?! 순간 뿡~! 어린아이로 변한 강아지님! 꿈인가 생인가 기겁을 하는 원정대에게 무심은 자신이 무심천의 꼬마정령이라 말하고, ‘마천루’의 폐수로부터 무심천을 구하기 위해 인간세상에 왔다고 밝힌다. 다음날 아침 믿지 못할 신비한 경험에 원정대는 꿈을 꾸거라 생각하지만 아침부터 말을 걸어와 원정대를 놀래키는 무심이! 강아지가 말을 한다는 아이들의 말은 누구도 믿지 않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원정대들이다. 자신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 맘이 상한 아이들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는 무심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만 무심이와 그의 엄마에 대한 사연을 전해 듣고는 의기투합!

힘을 합쳐 ‘마천루’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기로 하는데, 깜깜한 저녁 사진기를 들고 폐수를 쏟아내는 ‘마천루’의 폐수관을 찾은 아이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곳에서 용케 사진을 찍어 낸다. 하지만 달잠의 조작 실수로 플래시가 터지고 몰려든 Security들에게 붙잡히게 된다. 사진기를 두고 Security와 실갱이 하는 달잠을 보호하기 위해 무심은 사람을 물게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아이들을 파출소로 데려가고, 부모님 들 또한 원정대가 사고를 쳤다며 크게 혼을 낸다. 더군다나 무심이는 사람을 문 유기견으로 몰려 유기견 센터로 보내지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상실감에 젖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 원정대. 이대로 지고 마는거야?!

이대로 포기하면 정의의 사도가 아니지!!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무심이 유기견센터에서 안락사를 당하게 될 거란 정보를 얻은 달잠!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이대로 포기 할 순 없다! 백운과 선찬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무심을 구출하자며 설득에 나서는데! 결국 다시 뭉치게된 무심어린이 원정대! 백운의 지략과 석찬의 실감나는 배탈연기를 통해 무심을 구출하는 원정대!!! 감격의 재회도 잠시 이번엔 제대로 붙어 보고 싶다! 무심천에 사는 정령들과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채자 공격에 나서는데! 무심천이무기에, 백년묵은 맹꽂이, 물총쑈는 꺾지, 힘이 장사인 도깨비 등 무심천에 생명을 빚진 정령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동참하게 되고, Security들과의 대결에서 완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수가 팔팔 쏟아지는 폐수관 주위에서 사색이된 Security들이 귀신들린 강이라며 어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 달라고 애원하는 진풍경을 목격하게 된다. 결국 무심천을 구하게 된 것이다. 약속대로 무심은 수신이 보관해온 500년전 명암 약수를 받아들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엄마를 찾아간다. 눈물의 재회를 마치고 엄마의 병도 고친 무심. 꿈만 같은 하루를 엄마와 같이 보내고 다시 남석교 아래 꼬마정령의 집으로 돌아간다.

## <등장인물>

무심이 [무심천의 꼬마 정령] “엄마! 꼭 보러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

오년 전 사고로 무심천에서 목숨을 잃은 꼬마아이, 그 후 무심천의 꼬마정령이 되었다. 무심천강가에 들어선 거대기업 ‘마천루’가 무단으로 공장 폐수를 흘려보내자 무심천의 수신이 인간세계로 보내는 전령으로, 평소에는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말은바 임무를 완수하면 자신을 잃고 슬픔 속에 살다 미쳐 버린 어머니에게 500년전 명암약수를 마시게 하여 병을 낫게 할 수 있게된다. 과연 그는 임무를 완수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민선[무심의 엄마] “무심아! 엄마가 고기 사왔다! 어딴니? 무심아!!!?”

무심이의 엄마로 오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 버린다. 홀로 방치되어 참한 삶을 사는 가련한 여인. 그녀는 아직도 무심이가 살아 있다고 굳게 믿으며 무심천 강변에서 아들을 기다린다.

달잠이 [초등학생] “정의의 사도 달잠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아보!”

무심원정대의 리더다. 공부는 못하지만 활달한 성격에 밝은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로, 장난꾸러기 아이들로부터 종종 여자들을 구해내기도 한다. 세상의 악에 맞서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뜻이 맞는 친구 석찬, 백운과 함께 ‘반지 원정대’의 모방격인 ‘무심어린이원정대’를 조직 동네를 헤집고 다닌다. 무심이와 함께 거대기업 ‘마천루’의 부정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힘을 합한다.

백운 [초등학생 3학년] “나는야 원정대의 책략가!”

무심어린이원정대의 브레인! 공부도 잘하고, 활동적인 아이로 달잠이와 같은 학급의 절친이다. 달잠, 석찬과 함께 무심을 도와 무심천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선다.

석찬 [초등학교 3학년생] “달잠이 가는 곳엔 석찬이 있다!”

달잠과는 어려서부터 불알친구로 달잠이 가는 곳엔 항상 석찬이 있다.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우직한 친구. 원정대의 일원으로 무심이를 도우는 일에 적극 나선다.

달송이[초등학생] “두 얼굴의 아수라백작!”

동생 달잠이와 달리 얌전하고 새침하지만, 화가 나면 헐크같은 괴력을 보여준다.

기타인물

달잠엄마, Security들, 도깨비, 도깨비불, 이무기, 깍지, 땡땡이, 벌레들, 아이들, 아이1 경찰,소방관

#오프닝

[자막] ‘2006년 여름’

서글픈 여자의 울음소리 들려온다.

[F.I]

무심천변 남석교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의 모습.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강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젊은 여인.

그런 그녀를 위로 하듯 안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들 곁에 하얀 천으로 덮여진 아이.

[F.O]

그 위로 뜨는 자막 ‘무심천 무심이’

#-1

[자막] ‘2011년 여름’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인적이 없는 강변. 매몰된 남석교 아래 수십마리의 물고기들이 개미떼처럼 모여 든다. 서로 엉키듯 헤엄치는 물고기들! 이내 거대한 무리를 이뤄 군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녹아들 듯 엉겨붙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강아지의 형상이 되어간다. 이내 온전한 모습의 강아지가 된 물고기들. 비는 하염없이 쏟아진다.

#-2

비가 그친 화창한 아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달잠. 자신의 누이 달송이와 집을 나서는데, 달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심어린이원정대 멤버들인 백운과 석찬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달잠과 인사를 나눈다. 오늘도 신나는 등굣길이다.

#-3

이내 하나, 둘 모여드는 아이들 무심천을 따라 뺨은 길을 걷는데 그들 사이로 달잠 일행의 모습도 보인다. 이때 아이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여인! 오랜 전 사고로 아들을 잃고 충격에 미쳐버린 민선이다.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오물이 묻어 더러운 옷에, 형클어지고 딱진 머리하며, 얼굴과 손에는 때국물이 찰찰 흐르는 모습.

아이들-[익숙한 듯]거지 아줌마다! 도망가자!

반민선-무심아? 무심이니? 엄마가 고기 사왔다! 어서 와서 먹으렴!

[손을 펴면 쓰레기봉투에서 주워온 썩은 고깃덩어리가 있다.]

아이1-더러워! 우엑!

그녀에게서 우루루 떨어진 아이들 멀리서 돌을 던진다.  
아이들이 던진 돌에 이마를 맞는 민선.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붉은  
선혈. 아프지도 않은지. 찡찡대는 눈으로 계속 무심이를 애타게 부르고 있다.  
손에 꼭 쥐고 놓지않는 썩은 고깃덩어리들.....

이때다! 정의의 사도 달잠이 나가신다!! 잠에 절었던 눈에선 레이저가 나올 듯 힘이 들어 가 있고! 벌렁거리는  
콧구멍에선 증기라도 나올 기세다. 거지 아줌마의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달잠!

달 잠-불쌍한 아줌마 못살게 굴면 안돼!!

하지만 아이들 들은채만채 반응이 없다. 뭔가 약발이 안 먹힌다 싶었는데! 어디서 나타난 강아지님인지 달잠  
옆에 떡 하니 등장! 무섭게 아이들을 향해 짖어댄다. 아이들 슬금슬금 내뺄기미가 보이더니 이내,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다. 고놈 참 기특하네!? 너 이름이 뭐니??!

#-4

민선의 이마에 붙여진 밴드의 모습. 역시 원정대의 리더라며 달잠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는백운과 석찬의 모습  
뒤로 달송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달잠 뒷걸음질을 치며 누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 헐크의 화신이된 누이 달송이! “너 때문에 지각하겠어!!” 냅다 달잠의 머리에 분노의 꿀밤  
세례를 퍼 붙는다! “아이고! 달잠이 죽네! 사람살려!!”

#-5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가는 달잠과 아이들! 서서히 닫히는 교문 사이를 우샤인 볼트처럼 뺨하니 통과한다.  
지각은 면했구나 싶었지만 그들과 같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강아지님!? “야! 너 따라오면 안돼!!!”

#-6

화난 표정으로 달잠을 쫓아보고 있는 송이. 멧쩍은 듯 베시시 웃고 있는 달잠의 모습.  
복도에 아이들 주룩룩 앉아 손을들고 별을 서고 있다.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강아지 님.....강아지님 때문에  
오늘 운수 엄청 꼬인다.

#-7

시골벽적인 교실 달잠과 원정대 멤버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오늘도 한건 했다며 달잠아” 벌써 소문이  
났는지 아침에 있었던 달잠의 무용담이 교실에 퍼져있다.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가는 달잠. 그런 그에게 살며시  
나가와 귓속말을 하는 백운 “오늘 너희 집에서 반지의 제왕 보는 날이야! 잊지마!” 그렇다! 오늘은 그들이  
영웅처럼 떠받드는 간달프와 반지원정대의 모험을 다시 곱씹으며 DVD를 보는 날인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멤버들은 합숙을 하며 종교행사라도 되는 듯이 ‘반지원정대’를 찬양하고 있었으니! 일편 ‘반지원정대’에서부터  
삼편 ‘왕의 귀환’ 까지 수십번은 보고 또 보았으리라! 힘차게 긍정의 꼬덕임을 백운에게 날려주시는 달잠!

#-8

무심어린이원정대 멤버들 신이나야 될 하룻길에 뭔가 난감한 표정들이다. 이유인 즉, 쫓아 낸 줄 알았던 강아지님  
이 학교정문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달잠에게 달려들었기 때문. 집으로 향하는 달잠의 뒤를 줄줄



잘도 쫓아 오는 강아지님. 집에가! 계속 따라올거야?! 달잠의 온갖 구박과 협박, 회유에도 꾹꾹하게 뒤편르는데.

#-9

넓직한 앞 마당이 있는 주택 앞. 바로 달잠의 집이다. 그런데! 이 강아지님은 아직도 해맑은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며 달잠 앞에 서있으니...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너 집 없어?” 말을 알아듣고 대답이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짖는 강아지님 결국 대문을 열어주고 마는 달잠이다. “오늘 딱 하루만이야!”

#-10

어디서 길강아지를 주워왔느냐며 잔소리를 쏟아 부으시는 엄마와 이를 거들어 주시는 착한 누이 덕분에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끝마친 달잠! 하지만 꾹꾹하게 강아지님의 밥을 챙겨 마당으로 나가신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자신을 보고... 아니 밥을 보고 선풍기마냥 꼬리를 휘둘러 대는 강아지님에게 살포시 밥을 드리는 달잠. 훗...이제! 아이들과 반지원정대의 여행을 찬미하는 시간이다! 야호! 발에 모터를 단양 집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달잠.

#-11

간달프와 ‘반지원정대’의 모험을 함께하느라 피곤에 찼은 아이들, 잠자리에 들어 굶아떨어져 있다. 이불도 걷어차 주시고 아주 편안한 포즈로 꿈나라 여행 중 이시다. 이때 누군가 달잠 방의 창문을 두드린다. 여전히 꿈나라에 계신 아이들. 조금 강하게 두드려 지는 창문!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는 아이들! 누구야!!!? 다시 두드려 지는 창문! 겁에 질린 달잠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창문을 확! 열어젖히는데! 강아지님이 해맑게 꼬리를 흔들고 계신다. 니가 그랬니? 대답 없는 강아지님을 뒤로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찰라! 빛을 발하며 모습을 변화시키는 강아지님! 기겁을 하는 아이들! 자기 또래의 남자 아이로 변한 강아지님을 어안이병병하여 바라보는데...꿈인가 생인가 싶다. 그때 말을 걸어오는 강아지님!

무심이-안녕! 나는 무심천의 꼬마 정령! 무심이야!

달 잠-꼬마정령? 무심천..?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정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심이.

어린시절 무심천에서 목숨을 잃고 무심천을 관장하는 수신님의 도움을 받아 꼬마정령이 되었다는 것과, 지금 무심천이 거대기업 ‘마천루’의 공장에서 밤마다 몰래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말을 들려준다. 자신은 이런 사실들을 인간들에게 알리고 무심천을 구하고자 수신님이 보낸 전령으로 인간세계에 왔다는 것이다. 이젠 꿈일 거라 강하게 자신들의 불을 꼬집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통증뿐! 이젠! 꿈이 아니자나!! 오! 마이 갓!

#-12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달잠. 놀란 토끼눈이 되어서는 방을 살펴본다. 창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고, 창 너머 마당의 강아지님도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역시! 그건 꿈이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번개같이 고양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으로 돌진!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우적우적 먹어 주신다. 그런데 어쩐지 백운과 석찬의 표정이 좋지가 않다?! 엄마가 챙겨준 강아지님 아침밥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간 달잠. 어젯밤의 일이 생생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본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무심이-달잠아!! 아침 밥이야? 잘 먹을께!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달잠 “누구야?!!” “나야나! 무심이!! 무심천의 꼬마정령!”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앞에서 아침밥을 보며 꼬리를 신나게 흔들고 있는 강아지님이다! 어구머니! 그대로 주저앉으며 놀란 눈으로 강아지님을 바라보시는 달잠! 자신 뿐 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혼비백산을 해서는 집으로 뛰어 도망간다. “어제! 꿈이 아니었어?!!” 놀라워하는 달잠은 내버려 두고 아침을 맛나게 드셔주시는 강아지님! 기다시피 집안으로 들어가는 달잠.

#-13

‘엄마! 누나!!! 강아지가! 말해!!’ 달잠의 호들갑에 엄마와 누이의 반응은 싸늘할 뿐이다.

엄 마-아니 애가 뭘 잘 못 먹었나..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학교 갈 준비해!

달송이-잠 덜 잤니? 정신 차려..

백운과 석찬도 달잠의 말이 맞다며 거드는데 ‘애들이 정말! 장난 그만치고 어서 학교들 가라!’ 엄마와 누이는 원정대의 말을 전혀 믿을 생각이 없으시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두 사람을 끌고 마당으로 나가는 달잠 “애! 어서 말해봐! 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꼬리만 신나게 흔들고 있는 강아지님이다. 등 뒤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학교 늦겠다”, “쫓쫓...” 병쳐있는 달잠과 아이들 두고 들어가 버리는 누이와 엄마. 억울하고 답답한 맘뿐인 달잠! 그때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바보야 이진 우리들만의 비밀이라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의 원정대들이다.

#-14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아이들을 앞서 뛰어 나가는 무심이.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있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딜 간다는거야...?” “가 보면 알아”

#-15

수업시작 전의 교실, 달잠과 백운, 석찬 모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주변에 몰려 앉아 있는 아이들 “그게 진짜야?” “진짜라니까” “에이.. 말도 안돼!”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 했지만 아이들 통 믿을 생각을 안 한다. 아오! 미치고 환장하겠네!

#-16

아무도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아 기운이 빠진 아이들 학교를 나서고 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무심이 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는데. 아이들 영 시큰둥하다. “왜 들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어! 흥!” “미안 사정이 있어서..다 이야기 해줄 테니 날 따라와” 아이들의 옷자락을 당기며 따라오라는 듯 끁끁대는 무심이. 아이들 못이기는 척 따라가 준다.

#-17

무심천변의 버려진 주택 앞에 멈춰서는 무심의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다. 곧 이어 주택에서 민선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무심이가 학교에서 올 때가 됐는데..” 민선의 손에 썩은 고기가 여전히 쥐어져 있다. “우리 무심이 오면 줘야지..” 오지도 않을 아들을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민선의 모습. 아이들 눈물을 흘리는 무심의 모습에 당황해 하는데. 그런 아이들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 하는 무심. “저기 저분이 우리 엄마야..엄마한테 나밖에 없었지...고아로 태어나 힘들게 살아 오셨거든...군인인 아빠를 만났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어..그런데 나머지 잃게 된거야...불쌍한 우리엄마...”

#-18

과거회상, 자막 오년 전. 어린무심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선의 모습.

반민선-엄마가 일 끝나고 집에 올때 무심이 줄 고기 사올께!

무심이-고기! 와! 신난다!! 그럼 그때까지 혼자 있어야해??

반민선-응...우리 무심이는 착한아들이니까. 말썽 안 피우고 기다릴 수 있지?

민선이 내민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양증맞은 손가락을 거는 무심. 이내 민선은 직장으로 떠나가고 혼자 남은 무심은 심심한지 뒹굴 거리다가 집밖으로 나간다. 청주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무심 종이배를 띄우고 싶었는지 강가로 다가간다. 흐르는 물을 따라 빠르게 질주하는 종이배. 무심이도 신이 나는지 강변을 따라 같이 뛰어 간다. 하지만 강변에 튀어나온 돌에 끼어 버린 종이배. 무심 겁도 없이 침병침병 강으로 뛰어 든다.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오고 있는 민선의 손에 고기가 가득담긴 봉지가 쥐어져 있다. 그때 울리는 핸드폰. 고기가 담긴 봉지를 놓치고 마는데. 봉지가 터져 사방으로 고깃덩어리가 튀어나간다.

#-19

현재의 민선의 집 앞.

민선은 자신의 엄마이며, 오년 전 사고로 자신이 죽고 그 충격에 정신이 이상해져 아직도 자신이 살아 있는 줄 안다는 것과 수(水)신이 자신에게 부탁한 일을 해내면 엄마를 낳게 할 약수를 받아 그녀에게 모습을 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모두 들려 준 무심. 그리고 자신은 인간세상에서 오직 영혼이 맑고 정의로운 어린이들을 선택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엄마를 구해준 달잠과 아이들을 선택했다는 것. 무심천을 살리고 자신의 불쌍한 엄마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간곡히 청하는데. 마음 한켠이 아리게 도저히 뿌리 칠 수가 없다! “에라 모르겠다! 좋아! 한다! 해!” 거절 하지 못하고 청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다.

#-20

어두워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무심의 안내를 받아 ‘마천루’의 공장이 세워진 공단을 찾아가는 아이들. 관리인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감시초소가 세워진 강변에 거대한 폐수관이 무심천에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한다.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잠시 후 엄청난 양의 오폐수가 관을 통해 무심천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슬픈 표정의 무심.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폐수가 쏟아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달 잠-경찰에게 알려야겠어!

#-21

무심이와 같이 파출소에 들린 아이들. 하지만 파출소 안은 취객들의 난동으로 소란스럽고, 경찰들 역시 이들을 뜯어 말리느라 정신이 없다. 무심이와 아이들에게 아무도 시선을 주지않는데, “경찰 아저씨! 여기요!! 여기!” 경찰관 중 한명에게 무심천에 공장의 오폐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찰관. “여기는 애들이 노는 곳이 아니야! 어서 집에 들어가거라!” 애취급만 당하고는 떠밀려 쫓겨나듯 파출소에서 나오는 무심이와 아이들.

달잠-그래! 이번엔 소방서에 가보자!

소방서를 찾아간 무심과 아이들. 하지만 화재사고가 있는지 출동준비에 정신이 없다.

“아저씨! 저기요!” “미안하다! 지금 출동해야 해서!” 아무도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상황. 결국 축치진 어깨로 소방서를 나오고 만다.

#-22

달잠의 집 앞마당, 무심이와 아이들 풀이 죽어 있는 표정. 부모님께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또 무심어린이원정대니 뭐니 하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며 꾸중만 들은 후다. 어른들의 힘을 빌리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 “그래 결국 우리 힘으로 해내야겠어”

#-23

무심천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뭔가 꿈꿈이가 있는 듯한데. 그들이 몇 시간을 공들여 세운 계획은 다음과 같다. 마천루의 오염된 공업용수를 내뿜는 폐수관으로 몰래 잠입! 사진을 찍어 세상에 마천루의 만행을 알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원정대의 지략가 백운의 머리 속에서 나왔다.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아이들. 과연 이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24

계획대로 저녁을 먹고 해가진 후 자전거를 끌고 달잠의 집 앞에 모인 아이들. 긴장된 표정으로 무심이를 앞세워 무심천으로 출발한다. 얼마가지 않아 폐수관이 보이는 강변에 도착하고. 달잠이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는데. 오늘도 삼엄한 경계를 서는 Security들.

#-25

수풀 사이에 숨어 조심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달잠. 순조롭게 일이 착착 진행된다.

백 운-누워서 떡먹기 보다 쉽네!!히히

석 찬- 셋!!!

이제 들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때 카메라 조작을 잘못했는지. 환하게 터지는 플래쉬!! 오마이 갓!! 사람들 아이들이 숨어 있는 수풀로 몰려들고, 아이들 도망치려 해보지만 Security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 카메라는 뭐야?” 달잠에게서 카메라를 뺏으려 하지만 달잠 거칠게 저항하며 버틴다. Security 우악스럽게 힘으로 달잠의 팔을 잡아 카메라를 뺏으려 한다. 달잠 통증이 심한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이때 수풀 사이에서 튀어 나오는 무심! Security의 팔을 좌악! 물어 버린다!! 고통스러워 하며 달잠을 던지 듯 놓는데 그만 땅으로 떨어져 부서지는 카메라! 무심은 아이들 앞에 버티고 서서 Security들로부터 보호한다. Security들 무전으로 급히 상부에 연락을 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량들이 모습을 나타낸다. “경찰 아저씨들 잘 오셨어요! 여기요 여기!” 아이들 다행이다 싶은데, 차에서 내리는 경찰들 아이들이 아니라 Security들에게 가 인사를 건넨다. “신고접수 받고 왔습니다.” “어라?? 이게 아닌데??” Security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동료가 강아지에게 심하게 물렸고, 공장가동에도 불편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대는데. 이대로 몰려설 달잠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공장에서 폐수를 무심천으로 내보냈고 자신들은 그것을 사진에 담아 알리려고 했던 것 뿐이라며 카메라를 들어 보이지만 이미 심하게 부서져 있다. 당황한 달잠 직접

보시라며 폐수관으로 경찰들을 데리고 가는데. 잉?? 어찌된 일인지 맑디맑은 물이 풍풍 나오고 있다. 이미 Security들의 보고를 받은 공장에서 선수를 친 것! 아이들 경찰차에 실려 파출소로 가게 되는데...

#-26

겹에질린 아이들 파출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크게 야단친다! 억울하고 분하고 무섭고 서러워 눈물이 비오 듯 흐르는 아이들. 하고 싶은 말은 한 가득이지만 믿어 줄 것 같지 않다.

경찰관-이 강아지 주인이 어느 분이죠?

달잠은 자신의 강아지라고 말하지만 달잠의 엄마는 그저 아들이 유기견을 집에 데리고 온 것 뿐이라며 잘라 말한다. 이어지는 경찰관의 설명. 무심이가 사람을 공격했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달잠 울며불며 안 된다고 소리쳐 보지만 소용이 없다. 애초롭게 끄끙거리는 무심이를 파출소에 홀로 두고 부모님들에 의해 끌려 나오는 아이들. 무심의 울음소리 서럽다.

#-27

아이들 풀이 죽어 학교를 다니는 나날들. 자신들의 무력함에 기가 꺾인 모습들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지내는데. 평범한 몇 일이 계속 되고 이제 무심천의 일 따윈 자신들과 상관없는 먼 다른 이야기가 되어가는데! 과연 우리의 무심원정대는 이렇게 불의에 무너지고 마는 것 인가?

#-28

그렇게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 갈 때 쯤. 달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잠을 자다 소변이 마려 화장실로 가는 도중 부모님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내용인 즉, 이틀 후에 무심이가 안락사 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달잠. “에잇! 이대로 물려서면 달잠이가 아니지!” 결국 무심을 구출할 결심을 하게 되는데!

#-29

다음날, 백운과 석찬을 어렵사리 설득하는데 성공한 달잠! 무심을 구출하기로 뜻을 모은다! 다시 돌아 왔노라 무심어린이원정대!!!!!! 아보! 바로 계획수립에 들어가고! 그날 행동에 옮기기로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계획인 것이냐? 바로 무심이 구출작전이다! 석찬이 유기견을 입양하러 왔다면 센터에 들어가 복통을 일으키는 연기를 작렬 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 바로 달잠과 석찬이 무심을 찾아 탈출하는 것이다!

#-30

방과 후, 바로 유기견센터로 자전거를 모는 아이들. 계획대로 석찬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유기견들을 살펴본다. 이내 대중상 남우주연상 뽀치는 복통연기를 선보이는 석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블랙홀처럼 쬌~! 빨아들인다! 옹거니! 이때다! 달잠과 백운 유유히 센터를 헤집고 다니며 무심이를 찾는데. ‘무심아! 어딴어! 우리가 구하러 왔다고!’

#-31

기가죽어 좁은 철제우리에 갇혀있는 무심의 모습. 그런데? 어디선가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 온다! 달잠?! 백운!? 있는 힘껏 짖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무심! 그 소리에 의지해 무심을 찾아가는 아이들! 얼마 지나지 않아 감격의 재회를 하는데! “미안해..정말 미안해 무심아...” 구슬같은 눈물을 흘리며 무심을 껴안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달걀. 하지만 언제 까지고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어서 여기서 나가자!

#-32

무사히 무심을 구출해 낸 원정대. 기쁨의 재회를 나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마천루의 부정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 무심어린이원정대에 포기란 없다! 아보!! 이번엔 제대로 혼내 줄 생각!

#-33

무심이와 원정대 모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무심천을 돌아다니며 무심천에 생명을 빌어 사는 모든 생명들과 정령들에게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하는데. 청주의 생명을 끌어안은 어머니 강 무심천을 살리기 위해 온갖 동물과 정령들이 응답을 한다! 안개를 내뿜는 무심천이무기, 기절할 정도의 악취를 내뿜을 수 있는 100목은 맹꽁이, 물총 쏘는 꺾지, 힘이 장사인 도깨비들 그 밖에 온갖 물새들과 벌레들이 이번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D-Day는 모레!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 보자고!!'

#-34

어스름한 저녁 초승달 마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음침한 날에 무심천을 젖줄 삼아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이 마천루의 공장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유인 즉! 자신들의 어머니 무심천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원정대 아이들과 무심이가 선봉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제 목적이야 코앞이다! 무심아! 아이들아! 꼭 무심천을 구해줘!!

#-35

여전히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폐수관 근처.  
무심과 아이들 수풀이 우거진 곳에 납작 엎드려 있다. 그들의 뒤편 수많은 안광들이 빛나고 있는데, 무심천에 생명을 빚지고 있는 정령들과 동물들이다. 강에서는 수백마리의 물고기들이 군영을 이루며 헤엄을 치고 있다. 폐수관에서 오염된 검은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때를 맞춰 달걀이 수풀 속에서 뛰어 나온다.

달 잠-아저씨들! 여기 나 잡아 봐라!! 나는 다 봤지롱!

놀란 Security들 달잠을 잡기 위해 우루루 달려드는데, 이때 무심이의 신호를 받은 이무기가 강에서 입을 뻐꼼 내밀고 안개를 내뿜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짙은 안개로 뒤덮여 버리는 폐수관 일대! '뭐야?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네?' 정말 한 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에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하는 Security들. 사방에선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Security들 차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든다. 그때 안개 사이로 섬광들이 어지러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바로 도깨비불이다! Security들의 머리 위로 위협을 가하듯 비행하는 도깨비불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36

한편 수풀 안에서는 정령들과 동물들이 줄을 서서 자신이 투입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내 차례는 언제 오는거야..." "혼쫄을 내줘야 하는데" 정령들과 동물들 잔뜩 버리며 무심이의 신호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안개 속으로 들어 들어가는 모습. 안개 속에서는 연신 Security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37

한편, 도깨비불을 향해 가스총을 난사하는 Security들 도깨비불들이 일단 후퇴하자 의기양양해 하며 환호성을



지르는데. 하지만 바로 투입되는 100년 묵은 거대한 땀방울을 보고는 기겁을 한다. 땀방울의 몸에서 서서히 퍼지는 악취! Security들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대는데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코를 틀어막고는 땀방울을 향해서 가스총을 날려댄다. 땀방울이 들어가자 이번엔 무심천에 살고 있는 온갖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와 Security들에게 들러붙기 시작하고, 공포에 질린 Security들 가스총을 마구잡이로 난사해 댄다. 무심천의 생명들에게 혼이 나갈 정도로 혼이 나고 있는 Security들. 이제 마무리 타자 등장이다! 무쇠같은 힘을 자랑하는 도깨비들이 벌레를 떼내느라 정신없는 Security들을 데리고 한판 씨름을 벌이는데. 하나, 둘 나가떨어진다. 그렇게 일망타진되는 Security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정령들과 동물들 모두 황급히 수풀로 몸을 숨기고, 강속의 이무기는 내 뺏았던 안개를 재빨리 거둬들인다. 이내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에서 경찰들이 내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뉘이 나가있는 Security들과 시커먼 오뎅수를 쏟아내고 있는 관을 발견한다. Security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꺼내는데. Security들 오히려 경찰들을 방가워 하며 어서 이곳에서 떠나자고 아우성이다. 귀신들린 강이라나 뭐라나. 이제 무심이와 원정대의 임무는 끝이 났다. 무심의 소원성취만이 남았을뿐!

#-38

남석교를 향해 미친 듯이 뛰는 무심! 원정대들도 자전거를 타고 부지런히 뒤따른다. 이내 남석교가 매몰된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무심 강을 향해 크게 짖어대자 물이 요동치며 솟구쳐 오른다.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물의 모습. 이내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변한 물! 그렇다 바로 무심천의 수신이 모습을 들어낸 것 이다. 놀라워하는 아이들과 무심에게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수신.

수 신-너희들 덕분에 무심천이 살았구나. 고맙고 또 고맙다!!

500년간 보관해온 명암 약수가 담긴 호리병을 무심에게 건네는 수신. 약속한 대로 엄마를 고칠 수 있는 약을 얻었다! 그리고 수신의 입김이 무심에게 닿자 강아지의 모습에서 점점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무심이다. 이내 원래 아이였던 모습으로 변하고! ‘이제 어미를 만나러 가거라. 허허허’ 웃음소리만 남기고 순식간에 물방울이 되어 강으로 떨어져 내리는 수신.

#-39

폐가가된 민선의 집 앞.

벌써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인 무심과 그런 그를 뒤에서 배웅하는 원정대 멤버들. 무심 울먹이는 목소리를 엄마를 불러 보는데...

무심이-엄..엄마.. 엄마!!엄마!!!!

잠시 후 반쯤 부서진 문이 조금씩 열리며 놀란 표정의 민선이 얼굴을 내민다. 눈에는 그리움과 놀람, 반가움, 슬픔이 뒤엉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무심아! 아이고! 이놈아! 어디갔다 이제 온 거야!!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미안....미안해 엄마..정말 미안해...” 무심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서 들어가자! 엄마가 무심이 줄려고 맛있는 고기 사왔어.” 뒤에서 지켜보던 원정대들 참을 수 없는지 어찌까지 들쭉여 가며 눈물을 흘린다. 무심이도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고....“울지마 뚝!” 그런 무심을 품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아 주는 민선이다.

#-40

집안으로 들어가는 민선과 무심. 오랫동안 방치되어 성한 가구가 하나 없다. 길고양이와 쥐들이 돌아다니는 방에 먼지가 뽕얇게 앉은 조그마한 식탁이 있다. 그 위에 차려진 밥상.....

이가 나간 그릇들 위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음식들이 정갈이 놓여있다. 흰밥에 곰팡이가 핀 나물들. 담배꽁초가 섞여 있는 김치와 접시 한가득 쌓아 올려놓은 찌킨고기. 그녀의 시계는 오년 전 그날에 멈춰서 있다. 그렇게 민선은 오년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밥상을 차렸던 것이다. 아들에게 주지 못한 밥상을 이제야 펼치는 민선의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 피어난다. ‘무심아! 어서 먹어! 배고프지?! 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무심의 손에 수저를 꼭 쥐어주는 민선. “흑흑...엄마...미안...미안...미안” 그저 미안하단 말밖엔 못하는 무심이. 그런 무심의 얼굴에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진 손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주는 민선이다. 무심 품에 소중히 가지고 온 호리병을 꺼내어 놓는다. 엄마를 위해 가져 왔다고 컵에 따라 내미는데, 민선 쪽 들이 킁다. 순간 민선의 몸에서 상서로운 빛이 발산되며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거칠어지고 때가 낀 손과 얼굴은 깨끗하고 고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냉마조각 같이 더러워진 옷도 깨끗한 새 옷처럼 변한다. 민선의 머리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주마등. 무심이의 사고와 장례식 등의 기억이 지나간다. ‘아아...’ 모든 기억이 돌아 온 듯 울음 가득한 탄성을 지르며 무심이를 껴안는다. ‘무심이! 우리 무심이!!!’ 그렇게 두 모자가 진정한 감격의 상봉을 나누는 동안 호리병이 넘어지면서 약수가 쏟아지고 이제 집도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다. 부서진 문짝은 세월을 거스르 듯 반듯하게 달려있고, 먼지가 내려앉은 채 삭아가던 가구들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들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밥상도 어느새 진짜 반찬들로 채워져 간다. 그 동안의 일을 모두 민선에게 이야기 하는 무심과 그런 무심을 꼭 껴안고 이야기를 듣는 민선. 그렇게 몇 시간의 해후가 있은 후 밥상을 마주 하고 있는데, 그토록 먹이고 싶었던 고기를 밥위에 담뱃 없애 무심에게 먹여주는 민선이다. 행복해 보이는 두 모자의 모습. 무심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맛있는 밥과 반찬도 담뱃 해주며 행복해하는 민선. 그리고 민선에게 온갖 어리광을 피우며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무심.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 하지만 결국 이별의 순간이 오고야 마는데.

#-41

무심천가 남석교가 매몰된 지점.

원정대 아이들과 민선이 슬픈 표정을 애써 감추며 무심이 앞에 서있다. 무심이도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 묻어나는 표정을 숨기려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눈에서 떨어져 내리는 눈물은 감출수가 없는 모양이다. 이내 울음바다가 되어 버리는 이별의 현장.

무심이-엄마! 아프지 말고 오래 오래 잘 살아야돼! 알았지?

반민선-그래..우리 무심이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다 엄마랑 다시 만나자!

원정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물속에 몸을 담그는 무심. 슬피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물과 동화되어 간다. ‘무심아’ 울음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민선. 그런 엄마에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무심. 이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 그 위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위로 힘차게 튀어 오르며 엔딩크레딧 올라온다.